



MBC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임흥식

1984년 MBC 입사

정치·경제·사회부 기자

자연 다큐 「천적의 세계」 제작

노동조합 민실위 간사

홍콩 특파원

사회부장, 「2580」 부장

보도국 부국장, 논설위원

「프런티어 저널리즘 스쿨」 강의



MBC를 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제가 나서게 된 이유

저널리즘 원칙을 구현하겠습니다

편 가르지 않는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해고자 즉각 복직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트로이 컷’ 등 의혹 재조사

잘못된 과거사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능력에 따른 인사

일 **중심**의 **책임**으로 **명령**의 **책임**을 **맡는다**

편집회의 등 공개 방안 마련

인재 확보·육성에 전력

뉴스 신뢰도 1위 회복

뉴스부터 살리겠습니다

‘팩트’ 철저히 검증

MBC만의 뉴스

자율성과 창의성

콘텐츠로 승부하겠습니다
‘제2의 무한도전’ 키운다

공익 프로그램 강화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겠습니다

‘방송 독립’ 특별위원회 설치

HBO GO



D'LIVE Plus



FX



CJ 엘로비전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olleh tv



LG U+

tvN

CJ E&M



NETFLIX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MBC본사



콘텐츠 전략 총괄본부

자회사

MBC C&I

MBC AMERICA

MBC ARTS

iM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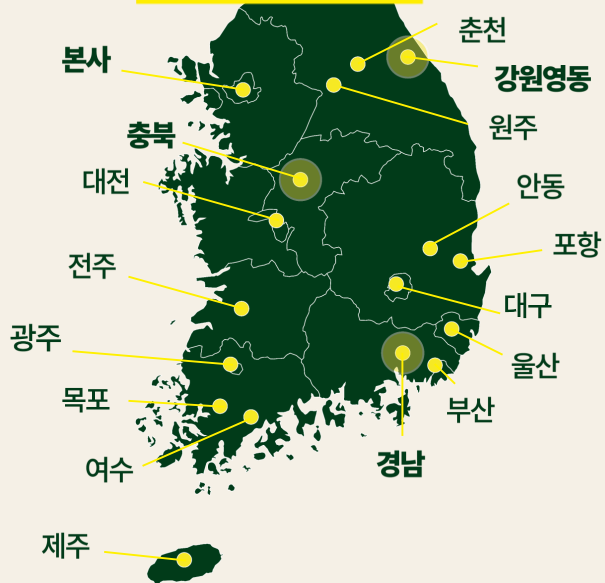
MBC PLUS

MBC 아카데미

MBC PLAYBE

MBC 나눔 

지역사



상생하겠습니다



상생하겠습니다

MBC C&I

MBC AMERICA

MBC ARTS

iMBC

MBC PLUS

MBC 아카데미

MBC PLAYBE

MBC 나눔
12

상생하겠습니다

비정규직 함께하겠습니다

‘갑질’ 안 하겠습니다



MBC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공영방송은

서로 다른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다리의 견고함은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오직 진실이란 토양에서 자라납니다



MBC의 주인은 시민입니다